

신안 임자농협 '농가소득 5000만원' 힘 보탠다

대파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역 상생 군과 함께 각종 소득 증대 사업

신안 임자농협(조합장 김대현)이 신안군과 함께 농가 소득 5000만원 시대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임자농협에 따르면 임자대교 완공이라는 환경과 경영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과 함께 행복한 삶의 동반자 임자농협건설'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중장기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임자농협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 소득원인 대파를 전국 최고 수준의 신선채소로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대파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을 농식품부 선정으로 농가 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도 대파브랜드 육성 지



신안 임자농협 임직원들이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농촌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 <임자농협 제공>

원 사업비 1억5400만원, 양파육묘사업비 6400만원, 무인항공방제지원 사업비 1억 6000만원 등 총 3억7400만원을 특별지원 했다. 또 농협중앙회 지자체 협력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농가 소득 향상 사업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임자농협은 영농자재 공급가격 인하사업과 대파공선출하회 육성사업, 농산물 소면적 품목 육성사업, 영농자재 구입권 지원,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같은 영농지도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조합원 수익환입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또 다문화 여성대학과 품물반 운영 등 조합원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펼쳐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임직원 농촌지원활동과 깨끗한 임자마을 가꾸기 사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농협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다.

김대현 임자농협 조합장은 "농협의 지향점은 조합원에게는 실이익을 주고 고객에게는 감동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농업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합원 중심과 고객행복, 미래지향적인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과 소통을 핵심가치로 삼아 경영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체험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윈드서핑을 배우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황토골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무안군은 현경면 홀통해수욕장에서 초·중·고 및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황토골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체험교실은 윈드서핑과 카이트 날리기, 딩기요트 등의 해양레포츠 체험과 응급상황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사고로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하기 위한 수영법을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되며 7월 넷째 주와 8월 첫째 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요일에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해양레포츠 체험은 12세 이상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가 가능하며 10명 이상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010-4252-6525, 061-450-4102) 가능하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신안군 6급 이하 공로연수 대상자 본인 선택 따라 6개월 이내 자유롭게 시행

신안군이 공무원의 정년퇴직 6개월을 앞두고 시행해 왔던 공로연수 기간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6급 이하 정년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을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시행하기로 변경했다.

신안군의 공무원 공로연수는 그동안 본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실시했다.

이번 제도개정으로 올 하반기 공로연수자 5명 중 4명은 정년퇴직일까지 근무기로 했으며 나머지 1명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7월 초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공로연수 제도 개선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다만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6개월 또는 본인 희망 시 1년까지 공로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993년 시작된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이 퇴임 후 사회 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했지만 찬반 논란이 제기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최우수 기관

행안부 공모전 장관상 수상 사업비 추가 배정 인센티브

영광군의 아름다운 소하천 만들기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

영광군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18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 '불갑산의 자연과 상사화의 아름다움을 품은 앵곡천'을 출품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영광군은 행안부장관 기관표창과 내년 신규사업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2010년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꾸기 전국 소하천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영광군을 비롯해 전국 36개 지자체가 공모전에 참여한 가운데 '서면-현장-최종 심사'로 이뤄지는 3단계 절차를 거쳐 우수지구 14곳을 확정했다.

영광군 새 행정지도·읍면도 제작·배부

영광군은 행정기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주민들의 안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행정지도 1500부와 읍·면도 각 300부를 새롭게 제작·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불갑산의 자연과 상사화의 아름다움을 품은 앵곡천 일대.

최우수상을 받은 영광 앵곡천은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 불갑사지구 관광지를 경유하는 소하천으로 치수적 기능과 함께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광군은 앵곡천 하류부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수질을 정화시켜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앵곡천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돼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정을 거쳐 1대 6만의 축척률로 제작했다.

특히 2012년에 제작된 옛 행정지도 뒷면의 연혁과 문화재, 하천, 인구, 재정, 공무원 현황 등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제외하고 사용자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주요 관광지와 축제행사, 영광의 명산, 교통정보를 포함했고 휴대가 간편하게 접이식으로 꾸몄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군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무안군이 행정안전부 2018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개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조치 등 5개 부문 36개 지표를 시도 자체 평가 후 행정안전부가 최종 평가했다.

무안군은 재난업무 담당자의 개인역량을 비롯해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구성원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모든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제8대 함평군의회 원구성 마치고 출범

의장 정철희, 부의장 허정임

제8대 함평군의회(의장 정철희)가 지난 3일 첫 발을 뒀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이윤행 함평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정철희 의원을, 부의장에 허정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정 의장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함평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제7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을 역임했다.

정 의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의정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펼쳐 나가겠다"며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정철희의장 허정임부의장

부의장에 당선된 허정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부의장까지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허 부의장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출신으로 함평축협이사와 민주당 함평군여성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허 부의장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을 받는 의회, 화합하고 더욱 발전하는 의회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